

中, ‘대만관’ 항의 전남광주 방문 취소…지방외교까지 ‘불뚝’

광저우시 대표단, 市에 보이콧 통보

6·7일 시장·의장단 교류 일정 무산

저우산시도 여수섬박람회 불참 의사

비엔날레 중국관 전시 철수 공식화

주한中대사관 “즉각시정” 담화 발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대만 파빌리온’ 명칭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파장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지방외교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이틀 앞두고 중국관이 전시 철수를 공식화한 데 이어 광저우시 대표단도 항의성 ‘보이콧’을 선언하며 예정된 전남광주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여기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참여 중국 일부 도시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은 오는 6·7일 전남광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통보했다.

리하이저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장 등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문제에 항의하는 차원의 ‘보이콧’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당초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무안으로 이동해 전남광주시의회 의장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이튿날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예방할 계획이었다.



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적 루안 웨라이(왼쪽 네번째) 큐레이터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중국 파빌리온 전시 철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을 둘러보고 시의회 의장 주재 환송 만찬을 끝으로 부산으로 이동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광저우 측이 전남광주 방문 자체를 철회하면서 민 시장과의 차담회를 비롯해 시의회 의장단 접견 및 공식 만찬과 산업·문화시설 방문 등 예정된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옛 광주시의회와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2

012년 10월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이후 교류를 지속해왔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양 측의 교류가 이번 사태로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도 중국 측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는 오는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립대만미술관(NTMoFA)의 전시 명칭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광주비엔날레가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NTMoFA 파빌리온’으로 변경하면서 대만 측과 참여 작가 등이 반발했고, 이에 광주비엔날레는 지난달 25일 다시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만 측과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

으나 이후 중국 측이 반발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됐다.

다잉 주한 중국대사가 민 시장에게 유감과 우려를 전달한 데 이어 광주비엔날레 중국관 전시 인력도 작품 설치를 중단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중국관의 루안웨라이(RUAN Yuelai) 큐레이터는 이날 광주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엔날레 전시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루안웨라이 큐레이터는 “중국관은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면서도 “잘못된 명칭 사용은 받아들일 수 없어 전시 철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 측 전시 명칭이 다시 변경되더라도 철수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앞서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달 31일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절차상 미비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 시장도 이번 논란을 “광주로서는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사후 책임을 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별시장과 재단의 사과에도 중국 측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담화문을 통해 “광주비엔날레 주최 측이 ‘대만 파빌리온’이라는 잘못된 명칭 사용을 허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했다”며 특별시장과 재단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다. /오복·변은진 기자

완도 노화도 유동인구 ‘북적’…작년 하루 1만7천명

비연륙섬 중 최다…비금도·소안도 뒤이어

유인섬 사업체 2만9천·종사자 4만8천여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노화도의 유동인구가 지난해 하루 평균 1만7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호남지방데이터링이 발표한 ‘호남·제주 지역 유인섬의 사업체·유동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비연륙섬의 일평균 유동인구는 완도군 노화도가 1만7천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안군 비금도 1만2천957명, 완도군 소안도 1만2천625명이 뒤를 이었다. 상위 3곳 모두 전남 지역 비연륙섬이다. 비연륙섬은 육지와 인근다

른 섬이 다리로 연결되지 않아 선박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섬을 말한다.

청년층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은 섬은 제주 우도였다.

20~39세 일평균 유동인구는 제주 우도가 2천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도 노화도 2천874명, 완도 소안도 1천887명 순이었다.

유동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인구와 달리 실제 해당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에 따라 상주인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섬 지역의 관광과 생활·경제활동 규모를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전남광주 지역 유인섬은 모두 277

개로 이 가운데 비연륙섬은 220개로 나타났다. 유인섬 거주인구는 15만5천929명으로 남자 8만786명, 여자 7만5천143명이다.

이는 2023년 유인섬 거주인구 15만9천471명과 비교하면 3천542명 감소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유인섬 사업체는 총 2만9천567개이며, 종사자 수는 4만8천834명으로 집계됐다. 총매출액은 36조6천244억원이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의 규모가 가장 컸다.

광·제조업 종사자는 1만8천50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7.9%를 차지했으며 매출액은 23조8천214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5.0%에 달했다.

종사자 수와 매출액 모두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호 기자

내년 전남광주 친환경 직불금 359억 지원 전망

정부 예산안 641억 편성…올해비 130억 ↑

전남광주 지역 친환경 농가에 지원되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 내년 약 35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논과 밭·과수의 직불 단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역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일 “2027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정부 예산안이 올해 407억원보다 234억원(약 58%) 늘어난 641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에 지원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2023년 229억원에서 내년 약 359억원으로 130억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남광주 지역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규모는 지난해 31일 기준 1만6천111농가, 2만8천15ha, 234억원이다.

2027년부터 논 직불 단가는 ha당 유기농이 9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무농약은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직수 직불금도 지급액이 조정된다. ha당 논은 57만원에서 72만원으로, 채소는 78만원에서 108만원으로, 과수는 84만원에서 114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조정은 2025년 논 직불 단가를 ha당 25만원 상향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밭·과수 단가는 9년간 동결됐다가 10년 만에 ha당 50만원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논과 밭의 직불 단가는 모두 ha당 50만원씩 높아지게 된다. /최명진 기자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제28기 신입생 및 교육생 모집

- 대상 : 스님, 일반불자, 교인, 법사 - 선착순 모집
- 교육내용 : 간단한 상주권공, 각종 불공의식, 신중39위, 바라춤, 나비춤, 사다리, 도량계, 다게, 복춤, 안채비, 겹채비, 대령소, 회심곡(화청) 등등
- 교육기간 : 2026년 10월 7일부터 4개월간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 목
- 교육시간 :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까지

혜공스님 교육

2026년 11월 17일 오후 3시 ~ 21일 오전 12시(4박5일)

전문의 스님한테 49재, 천도재, 애완용천도재, 방생기도 하실 분

- 49재 : 일곱 번 올리고 350만원 / 세 번 올리고 250만원
- 가족 천도재 : 200만원
- 애완용 천도재(2번) : 150만원
- 조상님 위패 100년 모심 (명절 포함, 제사 가능) 가족당 20만원
- 방생 : 팔공산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7시 시교육청 앞 출발

- 이번 교육은 실제로 쓸 수 있는 교육은 4개월에 걸쳐 강의합니다.
- 약 2시간에 걸쳐 49재, 천도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 불교 상담 가능
- 모든 의식 전문의 청하실 분 세분가고 110만원 (각 지방(방방곡곡)도 가능함)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 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1	대령/관육	15	산중불공	29	작법무(사방찬소리도량계)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2	상주권공지장불교의식	16	관음불공	30	작법무(육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3	상용영반	17	지장불공	31	작법무(향수나멜사다리나)	45	화엄의식
4	회심곡(화청)1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2	삼보통청	46	약사여래불공
5	회심곡(화청)2	19	종사관육	33	아침저녁종청	47	시련의식
6	구병의식	20	종사영반	34	향수해례예불	48	창훈의식
7	관음의식	21	가사불사의식	35	혼자서하는 민관육(간단한관육)	49	영가왕생계축, 지육계
8	점안의식	22	신중작법39위	36	생일불공	50	49재, 천도재, 실기 의식 1, 2, 3, 4, 5개
9	방생의식	23	간단한 신중작법	37	상주권공 49제의식1		
10	사물 다루는 법	24	선불조석예불	38	상주권공 49제의식2	51	20일간 상주권공 법배교육 녹음테이프 30개 판매중
11	안택	25	천수경/장엄염불	39	상주권공 49제의식3		
12	시 다림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0	상주권공 49제의식4		
13	산신불공	27	사시상단불공	41	제사불공	52	교재 2권(1, 2권) 100,000원
14	미타불공	28	작법무(복청계천수바라)	42	삼신이운		

혜공스님 영상 불공의식 51가지 교재 2권 10만원 / USB 판매 각각 6만원

▶ 계좌 : 농협 356-0473-1969 (노연숙) ▶ 제품구입처 : 혜공스님 010-5765-8604

광주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50호 혜공 스님